**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하여,
그 결과로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와 성인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함**

**7/15 월**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후 6:1**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후 1: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후 4:15**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풍성해진 은혜로 감사가 넘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8:1** 형제님들,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고후 8: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후 9:8**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언제나 충분히 만족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9:14**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매우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후 12: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7/16 화**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골 2:6-7**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히 10:5-10**
**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6** 주님은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7** 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오, 하나님!’ ”
**8** 위의 말씀에서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9** 그 후에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을 폐지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10**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만에 영원히 드려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1: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7/17 수**

**빌 3:13-14**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마 14:22**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마 14:23**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마 6: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출 33:11** 여호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중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시 119:147-148
147** 저는 새벽을 고대하며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들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148**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자 제 눈은 야간 파수 때를 고대하였습니다.

**7/18 목**

**골 3: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고전 14:26**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신 12:1** “여호와 그대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이 지켜 준행해야 할 율례와 규례는 이러합니다.
**신 12:8**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신 14:22-23**
**22** “그대는 해마다 밭에 씨를 뿌려 거둔 모든 소산 가운데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23**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에서 그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신선한 기름의 십일조와, 그리고 그대의 소 떼나 양 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항상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골 3: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고전 14:12, 15, 31**
**12** 여러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영들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이니만큼,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할 것이며,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생각으로도 찬송할 것입니다.
**31**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7/19 금**

1. **신 12:5-7, 11, 13-14, 18**
**5**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6**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 떼나 양 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7** 여러분은 거기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먹어야 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 식구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11**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13** 그대는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14** 그대는 그대의 한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18** 그대는 오직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 그대와 그대의 아들과 딸, 그대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또 그대가 손대는 모든 일에 대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2. **신 16:16** 여러분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3.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4. **7/20 토**
5.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6.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7. **시 26:8** 오, 여호와님! 저는 주님의 처소인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8. **시 29:9** 여호와의 음성이 암사슴을 새끼 낳게 하고 숲을 말갛게 벗기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 하고 외치네.
9. **시 27:4-6**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5** 환난 날에 그분은 나를 그분의 피신처에 감춰 주시고 그분의 천막 은밀한 곳에 숨겨 주시며 반석 위에 세워 주시리라.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나는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를 읊으리라.
10. **시 36:8-9**
**8**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11. **7/21 주일**
12. **창 2:10-15**
**10**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12**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도 있었다.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흘렀다.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15**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13.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14. **계 21:9-10, 19**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9**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